

동해가
키운 실력
동해를
위해!

서울대 박사 가 그리는
동해의 미래!

1가 김효섭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동해시의회의원선거 동해시 나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가	더불어 민주당	김호섭	남	1969.09.13 (56세)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졸업 (지리학 박사)	(전)동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전)외교부 사무관(주벨라루스 한국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80,169	79,004	423,441	모:177,724	-	5급 전시근로역 (수핵탈출증)	-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7,416	0	0	해당사항없음
후보자	5,902	0	0	
배우자	1,341	0	0	
직계존속	173	0	0	
직계비속	-	-	-	

4. 소명서

동해의 도약을 위해 이제는 준비된 지역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도약의 기회 - 동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동해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뚜벅이 여행의 성지로 떠오른 묵호, 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 통과, 북극항로 활성화 그리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지정 등의 기회를 시민의 지혜를 모아 동해시 변화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구도심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1조 예산 동해시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와 함께 정책을 세우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내 고향 동해시를 위해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대학 연구소와 외교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아시아 및 북방경제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해시의회에서 동해시 현안들을 다뤘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동해시의 내일을 위해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김효섭의 경험을 동해시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동해시의원 후보
1-가 김효섭 올림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돌파할
넓은 시야를 가진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동해시민 성공시대, 김

중앙정부, 강원도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묵호의 제2 전성기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고, 관광과 휴식이 조화로운 공간 조성

묵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빼어난 자연환경, 근대화의 유산인 항구와 산업시설, 그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경관과 문화가 있습니다.

묵호항에서 부곡동 준설토 투기장을 거쳐, 한섬에 이르는 바닷가는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관광객이 머무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묵호항 사일로는 예술 감성을 더해 묵호의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코레일 석탄광물창고는 체육, 예술,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준설토 투기장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여유롭게 쉬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천곡동 상권 재활성화 추진

한섬개발과 연계하고, 상권의 특성을 살리고 주차문제 해결

천곡동에 빈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상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섬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고,

천곡동만의 특성을 살려 주민도 관광객도 찾고 싶은 도심지 재활성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용지 활용이나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해형 일자리’ 창출

청년이 머무는 동해를 위해, 『산-관-학 연계』 기술인력 양성

국제무역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주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LS전선 등의 확장,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시청과 의회를 비롯한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에게 맹목적으로 지역주민 채용을 확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채용하라고 해야 합니다.

시청-의회-교육청-기업-지역경제단체-대학(기술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지역과 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해상고에 지역산업과 경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산-관-학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섭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쉽’이 있는 공간 조성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공원,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동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공존하는 휴식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산과 바다, 계곡과 공원은 관광지이자 시민의 안식처야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대와 함께 유지 보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섬~하평~부곡돌담마을~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어지는 해변은

이국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 주민들이 편히 산책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피크닉 공간, 힐링·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이 넘치는 동해시

복지정책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시민과 골목상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초·중·고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진로 상담 등의 청소년 맞춤형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의료·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내고향 동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동해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동해시민입니다

시민의 시의회, 정책제안 시의회! 김효섭이 시작합니다

| 동해시의회의 필요성과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는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에 눈 감고,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지방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주민 속에 답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주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해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책상 앞의 정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 를 만들겠습니다.

일명 ‘광장의회’, ‘골목 소담’, ‘파라솔 의회’ 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 동해시청과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위임하신 시정 감시와 견제 기능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판과 대책 없는 비난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시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동해시와 시민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과정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시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의원,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준비된 시의원, 달라지는 동해시! **김효섭**이 시작합니다

| 행정능력을 겸비한 실사구시형 전문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
김효섭의 지난 20년 동안의 삶은 연구원과 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국가 발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외교부와 동해시의회에서 활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북방경제 · 국제정책 전문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고,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환동해지역(한-중-일-러)을 연구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한-러 경제협력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소련 국가의 일원이었던 벨라루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동해 맞춤형 지역정책 전문가

김효섭의 삶의 방향은 늘 고향 동해를 향하였습니다.
지리학과 대학원을 진학한 것도
고향 동해 발전을 위한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었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박사논문을 쓴 것도
북방경제 전진기지 동해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정답을
찾겠습니다**

1가 김효섭

대학과 중앙정부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 내 고향 동해 발전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동해시민임이 자부심이 되는
희망의 동해시를 만드는데
저 김효섭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정책, 북방경제 전문가 김효섭!
동해의 미래지도 새로 그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초심 잃지 않고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찾고싶은
일잘하는 시의원_김효섭

- 전) 외교부 사무관 (주벨라루스한국대사관 영사)
- 전) 동해시의회 정책지원관
- 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연구교수
-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특별위원

- 삼화초 · 광희중 · 강릉고 졸업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석·박사